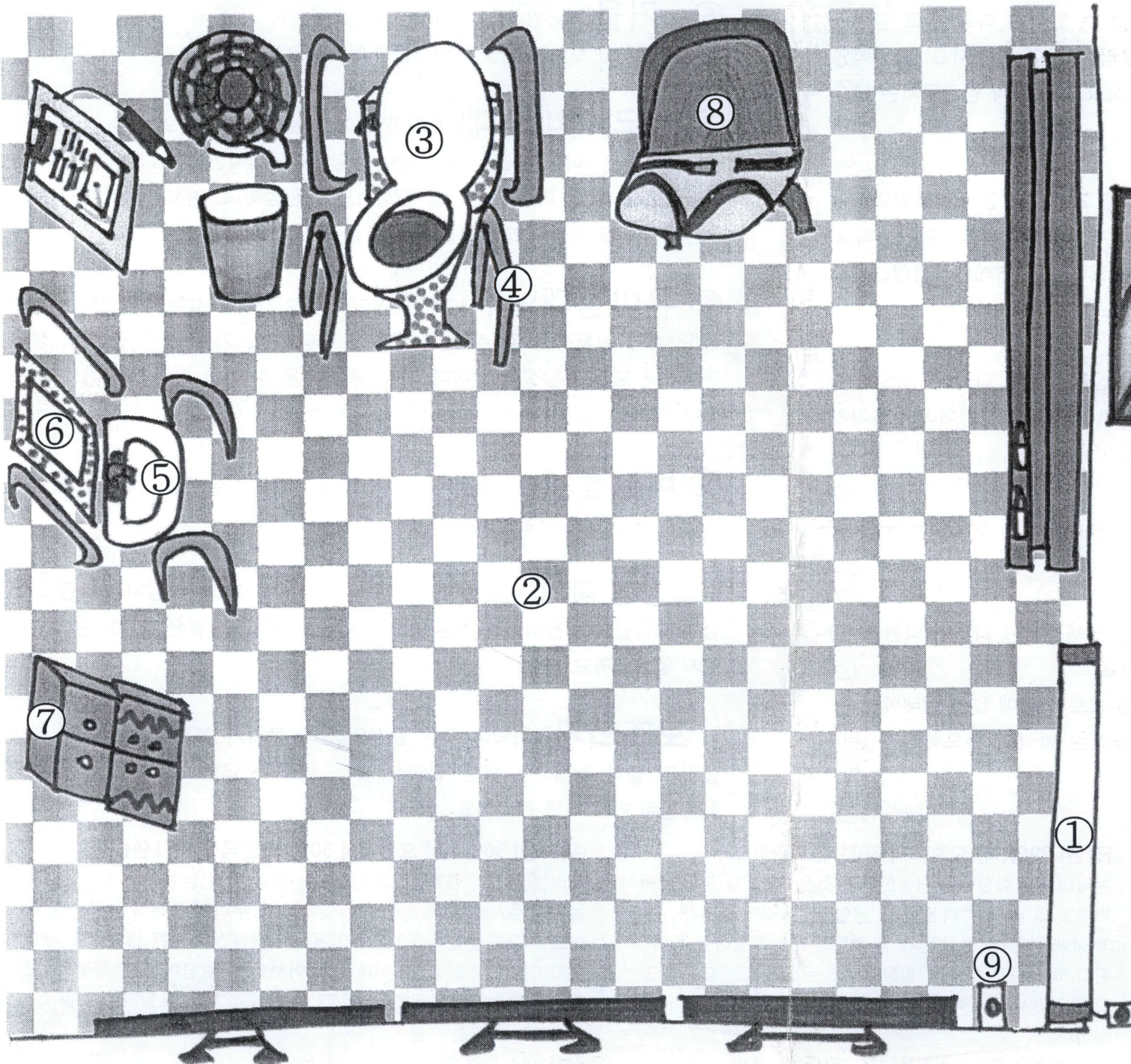


<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

1인 화장실 안내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설명은 뒷면에

① **출입문:**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열고 닫기가 쉬어야 해요. 버튼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좋겠지요.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은 안전하게 잠겨야 해요. 버튼이나 잠금장치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요.

② **바닥:** 휠체어가 이동 가능하도록 턱이 없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해요.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해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해요.

③ **변기:** 꾸그려 앉기가 불편한 사람들(신체장애인,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을 위해서 변기는 (앉아서 일을 보는)양변기여야 해요. 휠체어에서 옮기기 쉽게 변기의 높이는 40~45cm이내여야 해요.

④ **손잡이:** 몸을 이동하거나 지탱하기 위해서 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⑤ **세면대:** 서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신체장애인, 다리가 약한 노인)을 위해서 세면기 좌우에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물 내리는 세정장치: 누구나 누를 수 있는 버튼으로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가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해요. (돌리는 방식의 수도꼭지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영화] 28일(수) 6시30분 백양관 강당

트랜스 가족: FTM트랜스젠더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 사회에 대한 생각,
삶에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담아냈다.
담쟁이: 장애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라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강연] 29일(목) 오후 6시 30분 연희관B012

현재의 공공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일'을 본다는 목적
외에도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검열하는 장이
된다. 너무나도 익숙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상대화하고,
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의미를 읽어낼
것이다.
강사: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루인

⑥ **거울:** 어린이나 휠체어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서도 잘 보이게 거울을 비스듬히 붙여놓으면 좋아요.

⑦ **생리대비치대:** 휴지가 놓여 있듯이 생리대 또한 놓여 있으면
좋아요. 많은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지만 대부분 그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요. 여성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금전적 부담을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⑧ **유아침대:** 밖에 나가면 마땅히 아이 기저귀를 갈아줄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접이식 베이비부스가 있으면 좋아요. 성별
구분없이 모든 화장실에 있어야 해요. 엄마(혹은 아빠)만 기저귀를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⑨ **비상벨:** 변태의 출현이나 몸이 갑자기 아픈 비상시를 대비해 사람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에 벨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장실 마크:**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여자는 빨강, 남자는 파랑 같은
성별 고정관념이 들어가지 않은 마크여야 해요. 1인 화장실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 **보조의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작동범위 외에 두면 편리해요.

[워크숍] 30일 (금) 오후 6시 30분 노천극장 제 1연습실

우리는 자신의 성별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따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몸짓/행동/태도를 학습하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몸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상대화하며 성별 이분의 틀을 넘어 다른 정체체성의,
다른 성별정체성의 몸짓을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 여성주의 춤테라피스트 이다